공룡의 칫솔은 어디로

칫솔, 출발! 발은 멈춰!



글·그림 올레길



숲에서 놀던 도윤이가 통나무를 훌쩍
넘었어요. 공룡도 쿵쿵 따라왔지요. 그루터기
위에는 엄마가 챙겨 둔 칫솔과 물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도 이 닦자!” 도윤이가 파란 칫솔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공룡은 입을 꾹 다물더니,
통나무 너머로 후다닥 숨어 버렸어요.



잠시 뒤, 공룡이 칫솔을 머리에 얹고
나타났어요. “이건 내 모자야!” 도윤이가 깔깔
웃었어요. “아니야, 칫솔은 입에 쏙 넣는 거야.”



공룡은 칫솔을 흔들며 쿵쿵 행진했어요.
나뭇잎이 우수수 쏟아져 공룡 코에 착
붙었지요. 이 닦기 싫어서 자꾸만 딴청이에요.



도윤이가 코에 붙은 잎을 떼어 주었어요. “사실 나도 양치가 귀찮았어. 그래도 같이 하면 재밌을 거야.” 도윤이가 초록 칫솔을 집었어요.



도윤이가 먼저 칫솔을 입에 쏙 넣었어요.
위아래로 치카치카, 앞뒤로 치카치카. 공룡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대로 따라 했어요.



“치카치카, 출발!” 이번엔 공룡이 크게 외쳤어요. 둘은 나란히 서서 구석구석 이를 닦았어요. 공룡 이빨이 숲속에서 반짝반짝 빛났어요.



물을 머금고 대야에 퉤! 칫솔도 그루터기에 가지런히 눕혔어요. 공룡이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어요. “내일도 같이 하자!”

끝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별이 남길 바라요.

공룡의 칫솔은 어디로

글·그림 올레길

© 2026 올레길 · Storypia